

※ 총 6면 30문항이며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 1 -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떠돌아들어 살아오긴 했어도, 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못할 일은 한 번도 안 해 보고 살아 온 늙은이다. 굶은 밥 먹고 굶은 옷 입고 굶은 잠자리 속에 말년을 보냈어도 난 이웃이나 이 동네 사람들에게 굶은 소리는 안 듣고 늙어 왔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하니 나 죽고 나면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흙 한 삽, 땀장 한 장씩은 덮어 주러 올 거란 말이다. 늙거나 젊거나 그렇게 내 혼백 들여다봐 주러 오는 사람들을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죽어 이웃이 없는 것보다 더 고단한 것도 없는 법인데, 오는 사람 마다할 수 없고 가난하게 간 늙은이가 죽어서라도 날 들여다봐 주러 오는 사람들한테

㉡쓴 소주 한 잔 대접해 보내고 싶은 게 죄가 될 거냐. 그래서 그저 혼자서 궁리해 본 일이란다. 숨 끊어지는 날 바로 못 내가 묻으면 주검하고 산 사람들이 방 하나뿐 아니냐. 먼 데서 온 늙은들도 그렇고... 그래서 꼭 찬바람이나 막고 궁둥이 붙여 앉을 방 한 칸만 어떻게 늘어 봤으면 했더니라마는... 그게 어디 맘같은 일이더냐. 이도 저도 다 늙고 속없는 늙은이 노망길 테이제...”

노인의 소망은 바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략)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간 수도 많았다면서요?”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탈렐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 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 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해서 기분을 바꿔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그것은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 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었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나. 남의 집 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을...”

(중략)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궂 이야기였다. 178년 전, 고등학교 일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 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려고 싶어 옛 살

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 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가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짐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 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이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었다.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궂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야 비로소 짐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궂 한 가지나마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궂였다.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 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 온 옷궂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 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가도 그 옷궂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새삼 꺼림칙스러워 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청준, ‘눈길’ -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4점)

- ㉠ 주로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 ㉡ 아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노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 ㉤ 노인은 나에게 직설적으로 짐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2. '나'가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행위로 알 수 있는 것은?  
(3.4점)

- ① 어머니에 대해 관심이 없다.
- ②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다.
- ③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 ④ 어머니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실제로 혈육이 아닐 수도 있다.

3. ㉠을 통해 알 수 있는 노인의 성격은?(3.5점)

- ① 깔끔한 성격
- ② 이기적인 성격
- ③ 자기 중심적인 성격
- ④ 이해 타산적인 성격
- ⑤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성격

4. ㉡이 의미하는 바는? (3.1점)

- ① 마을 사람들의 취향
- ② 쓸데없는 노인의 걸치레
- ③ 마을 사람들의 생활수준
- ④ 마을 사람들에 대한 노인의 정성
- ⑤ 마을 사람들에 대한 노인의 부담감

5. ㉢이 이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난의 기억
- ② 삶의 외로움
- ③ 아들에 대한 사랑
- ④ 집을 잃은 슬픔
- ⑤ 남편에 대한 그리움

6.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4점)

- ① '노인'은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한다.
- ② '나'는 과거의 기억을 회하고 싫어한다.
- ③ '나'는 노인에게 부담감을 갖고 있다.
- ④ '노인'은 '나'와 '아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켜 준다.
- ⑤ '아내'는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고 노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7.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은? (3.5점)

- ① 과거에 노인은 집이 팔린 것을 나에게 숨겼다
- ② 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 ③ 노인은 자신의 사후 준비를 걱정하고 있다.
- ④ 아내는 과거에 대단한 부잣집에서 살아왔다.
- ⑤ 나는 노인의 사랑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있다.

※ [ 8 - 1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昭尙陽江강 나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東동州州 밤 게오 새와 北북寬寬亭亭의 올라하니,  
㉠三삼角각山山 第第一일峯봉이 하마면 岬岬로다.  
㉡弓궁王왕 大대闕闊 터회 烏오鵲작이 지지피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난다, 몰아난다.  
淮淮陽陽 네 일흠이 마초아 가탈시고,  
汲汲長長孺유 風풍彩채를 고태 아니 볼 게이고.

(나)

營營中中이 無無事사하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花花川川 時내길히 風風岳岳악으로 버더 있다.  
行행裝裝을 다 떨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피,  
百百川川洞洞 거태 두고 萬萬瀑瀑洞洞 드러가니,  
銀은 가탄 무지게, 玉玉 가탄 龍龍의 초리,  
섯돌며 뽀난 소래 十十里리의 자자시니,  
들을 제난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다)

金金剛剛臺臺 맨 우층층의 仙仙鶴鶴학이 샷기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聲聲의 첫잠을 깨뒀던디,  
㉢縞縞衣의 玄玄裳裳이 半半空공의 소소 뜨니,  
西西湖호 넷 主主人인을 받겨서 넘노난 닷.  
小小香香爐爐 大대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正正陽陽寺寺 眞眞歇歇臺臺 고태 올라 안잔마리,  
廬廬山山 眞眞面面目목이 여괴야 다 뵈나다.  
어와, 造造化化翁翁이 현사토 현사할샤.  
㉣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芙蓉蓉을 고태난 닷, 白白玉玉을 못것난 닷,  
東東溟溟을 박차난 닷, 北北極極을 괴왔난 닷.  
눈흘시고 望望高高臺臺, 외로울샤 穴穴望望峰봉이  
㉤하날의 추미러 무사 일을 사로리라  
千千萬萬劫劫 디나다록 구필 줄 모라난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가타니 또 잇난가.

(라)

圓圓通通골 가난 길로 獅獅子子峰봉을 차차가니,  
그 알패 너러바회 化化龍龍되 되어세라.  
千千年年 老老龍龍이 구배구배 서려 이서,  
晝晝夜夜的 홀너 내여 滄滄海海에 니어시니,  
㉥ 風風雲雲을 언제 어더 三三日日雨雨우랄 디런난다.  
陰陰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사라.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점)

- ① 글의 종류는 가사이다.
- ② 문체는 산문체이다.
- ③ 조선시대 작품이다.
- ④ 기행문의 형식이다.
- ⑤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9.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4점)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
- ② 먼 길을 떠나는 불안함
- ③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 ④ 자연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
- ⑤ 험난한 여정에 대한 걱정과 무사 기원

10. ㉡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3.4점)

- ① 회자정리(會者定離)
- ② 지피지기(知彼知己)
- ③ 명경지수(明鏡止水)
- ④ 자승자박(自繩自縛)
- ⑤ 인생무상(人生無常)

11. (나)에서 표현된 것 중 원관념이 다른 하나는? (3.4점)

- ① 風풍岳악으로 버터 있다.
- ② 銀은 가탄 무지게
- ③ 玉옥 가탄 龍룡의 초리
- ④ 들을 제단 우레러니
- ⑤ 보니난 눈이로다.

12. ㉢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5점)

- ① 춘풍옥성
- ② 옛주인
- ③ 금강대
- ④ 선학
- ⑤ 반공

13. ㉣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3.4점)

- ① 서호의 아름다움
- ② 소향로 대향로의 모습
- ③ 정향사 진혈대의 모습
- ④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 ⑤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

14. ㉤을 통해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4점)

- ① 세월의 빠름
- ② 시간의 무상함
- ③ 왕조의 패망
- ④ 자연의 위력
- ⑤ 충신의 면모

15. ㉥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여정이 안전하길 비는 마음
- ② 좋은 정치를 베풀고 싶은 포부
- ③ 아름다운 경치가 영원하길 비는 마음
- ④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존중하겠다는 마음
- ⑤ 풀 한 잎에도 깃들여 있는 생명의 신비에 찬탄

[16 - 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간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만유의 법칙을 사랑으로 파악하는 위대한 종교적·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주의 운동은 결코 수동적인 저항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리나라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나)

간디는 절대로 몽상가는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 는 인도의 해방도, 보편적인 인간 해방도 없다는 것이었다. 민족 해방은 단지 외국 지배자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참다운 해방은 지배와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타파하고 그 구조에 길들여져 온 심리적 습관과 욕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일 — 다시 말하여 일체의 ‘㉠꺠의 교의(敎義)’로부터의 초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문명이었다.

(라)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며, 금전과 물건의 노예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 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고, 비서구 지역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간디 사상에 물레의 상징이 갖는 의미가 드러난다.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레질의 가치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마)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다.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지만, 거대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화,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고 할 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

(바)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사)  
간디의 메시지는 경제 성장의 논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종과 편익주의적 생활의 안이성에 깊숙이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헛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온갖 생명에 위해를 가해 온 산업 문명이 인간 생존의 자연적·생물학적 기초 자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도달한 지금 그것이 정말 헛소리로 남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김종철, '간디의 물레' -

1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4점)
- ① 간디의 사상은 현대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 ②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③ 간디의 물레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④ 간디가 주장하는 사랑은 실천적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 간디의 사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4점)
- ① 외국 지배자의 퇴각
  - ② 비폭력주의와 사랑의 실천
  - ③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려 함
  - ④ 무비판적인 순종과 편익주의적 생활
  - ⑤ 인간을 소외시키는 인간규모의 기계

18. '물레'와 '거대 기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3.5점)

( 물레 )	( 거대 기계 )
① 인간적	비인간적
② 평등한 사회	계급사회지향
③ 자급자족의 소비	낭비적 소비
④ 생산수단이 민중에 달림	억압의 구조 강화
⑤ 인간을 소외시키는 노동	인간 중심의 대규모화

19. 위 글을 바탕으로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간디의 관점은? (3.4점)

- ① 부정적
- ② 수용적
- ③ 긍정적
- ④ 완성적
- ⑤ 무비판적

20. 간디가 말한 이상적인 사회와 거리가 먼 것은? (3.4점)

- ① 자기 충족적 소농촌 공동체
- ②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 중심
- ③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 실현 사회
- ④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없음
- ⑤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회

21. (나)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5점)

- ①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 ② 직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사장
- ③ 내면의 평화를 위해 명상하는 사람들
- ④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시민들
- ⑤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경찰력

22. (사)와 <보기>의 공통적인 설명방식은? (3.4점)

————< 보 기 >————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울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청개구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 ① 묘사
- ② 분석
- ③ 분류
- ④ 유추
- ⑤ 정의

[23 - 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전(前)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 좀 얻어 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관대, 우리 안전남(案前) 걸인 혼금하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 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훗입맛이 사납것다.

(나)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관에 닥채저뽀,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던 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다)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正體)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금준 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 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락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이요,

가성 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라)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인쇄(印櫃) 잃고 과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宕巾)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小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고라.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딱  
“애고, 나 죽네!”  
이 때 수의 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흰화(喧譁)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사처(徙處)하라.”

(마)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나.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를(繡衣) 사또 듣조시오. 층암 절벽(層巖絕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바)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를 들어 대상(臺上)을 살펴보니 걸객(乞客)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절(秋節)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梨花) 춘풍(春風)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라.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씨고?

- 완판본(完板本)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

2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한다.
- ② 해학과 풍자로 웃음을 자아낸다.
- ③ 조선시대에 한 개인이 창작된 한문 소설이다.
- ④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 ⑤ 일상적인 구어체와 한문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2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4점)

- ① 운봉은 어사또를 배려하는 말을 한다.
- ② 어사또는 거지차림으로 본관사또 잔치에 왔다.
- ③ 마지막에는 이몽룡과 춘향이가 재회해 행복하게 끝난다.
- ④ 암행어사 출두에 모든 수령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려 한다.
- ⑤ 본관사또는 어사또를 알아보고 근사한 상차림을 내어 놓는다.

25. (가)의 ㉠과 같은 반어적 표현이 나타난 단락은? (3.5점)

- ① (나)
- ② (다)
- ③ (라)
- ④ (마)
- ⑤ (바)

26. (가)의 ㉡에 담긴 인물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운봉의 소견이 맘에 안 든다.
- ② 평소에 운봉을 미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 ③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운봉이 해서 서운했다.
- ④ 운봉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 ⑤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

27. 위 글에서 동음이의어로 사용된 것은? (3.4점)

- ① 콩나물
- ② 깍두기
- ③ 막걸리
- ④ 상
- ⑤ 갈비

28. (다)에 나타난 한시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자성어는?  
(3.4점)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 ④ 금지옥엽(金枝玉葉)
- ⑤ 동병상련(同病相憐)

29. ㉠~㉡의 의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점)

- ① ㉠ : 이몽룡 어사또
- ② ㉡ : 춘향이의 시련
- ③ ㉢ : 춘향이의 굳은 절개
- ④ ㉣ : 변사또의 횡포
- ⑤ ㉤ : 변사또의 죽음

30. 위 작품의 배경설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4점)

- ① 열녀설화
- ② 영정설화
- ③ 암행어사설화
- ④ 관탈민녀설화
- ⑤ 박타는 처녀 설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문산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답 및 문제 풀이(해설)

☞ 정답 표기

1. ①	2. ③	3. ①	4. ④	5. ③
6. ④	7. ④	8. ②	9. ①	10. ⑤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②	17. ②	18. ⑤	19. ①	20. ②
21. ⑤	22. ④	23. ③	24. ⑤	25. ④
26. ①	27. ⑤	28. ①	29. ⑤	30. ⑤

☞ 문제 풀이

[ 1~7 ] 지문 해제

㉠"떠돌아돌아 살아오긴 했어도, 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못할 일은 한 번도 안 해 보고 살아 온 늙은이다. 굶은 밥 먹고 굶은 옷 입고 굶은 잠자리 속에 말년을 보냈어도 난 이웃이나 이 동네 사람들에게 굶은 소리는 안 듣고 늙어 왔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하니 나 죽고 나면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 이 늙은이 주검 위에 흙 한 삽, 뗏장 한 장씩은 덮어 주러 올 거란 말이다. 늙거나 젊거나 그렇게 내 혼백 들여다봐 주러 오는 사람들을 어찌할 것이냐. 사람은 죽어 이웃이 없는 것보다 더 고단한 것도 없는 법인데, 오는 사람 마다할 수 없고 가난하게 간 늙은이가 죽어서라도 날 들여다봐 주러 오는 사람들한테  
㉡"쓰 소주 한 잔 대접해 보내고 싶은 게 죄가 될 거냐. 그래서 그저 혼자서 궁리해 본 일이라. 숨 끊어지는 날 바로 못 내가 묻으면 주검하고 산 사람들이 방 하나뿐 아니냐. 먼 데서 온 느그들도 그렇고... 그래서 꼭 찬바람이나 막고 궁둥이 붙여 앉을 방 한 칸만 어떻게 늘어 봤으면 했더니라... 그게 어디 맘 같은 일이더냐. 이도 저도 다 늙고 속없는 늙은이 노망길 테이제..."  
노인의 소망은 바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락)

2. 평가개념 : 글의 전반적인 이해 [정답] ③

위 소설에서 등장인물 '나'가 어머니를 줄곧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사건 전개와 바탕이 되고 있는 인물의 심리에서 알 수 있다. 소설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과거 집안의 몰락과 집이 팔린 후 노인과 '나'의 옛집에서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홀로 고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 때문에 결국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3. 평가개념 :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 ①

㉠에서 노인의 고백 '굶은 밥 먹고 굶은 옷 입고 굶은 잠자리 속에서 말년을 보냈어도 난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굶은 소리는 안 듣고 늙어왔다.'는 말에서 노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6. 평가개념 : 등장인물간의 관계 구조 [정답] ④

'노인'은 '나'와 '아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켜 줄 만큼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아내'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

7. 평가개념 : 구체적 정보의 이해와 종합 [정답] ④

전개 과정 전반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 노인은 집이 팔린 것을 나에게 숨겼고, 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왔으며, 노인은 자신의 사후 준비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노인의 사랑을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아 회피하고 있다.

[ 8~15 ] 지문 해제

(가)  
昭叢陽江강 나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사.  
東동州州 밤 계오 새와 北북嶽岳관후당의 올라하니,  
㉠三삼角각산山 第第一一峯봉이 하마면 岬岬로다.  
㉡弓궁王왕 大대關關 吐吐 烏오鵲雀이 지지괴니,  
千천古古 興興亡亡을 아난다, 몰아난다.  
淮淮陽陽 네 일흠이 마초아 가탈시고.  
汲汲長長堂堂 風風彩彩를 고택 아니 볼 게이고.

(나)  
營營中中이 無無事事하고 時時節節이 三三月월인 제,  
花花川川 千천 시내길히 風風岳岳으로 버더 있다.  
行行裝裝을 다 떨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퍼,  
百百川川 洞洞 동 거태 두고 萬萬瀑瀑 洞洞 동 드러가니,  
銀銀은 가탄 무지계, 玉玉은 가탄 龍龍의 초리,  
섯들며 뽀난 소리 十十里리의 자자시니,  
들을 제나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다)  
金金剛剛 臺臺 맨 우뚝층의 仙仙鶴鶴이 샷기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 聲聲의 첫짐을 깨뚫던디,  
㉠縞縞衣衣의 玄玄纁纁이 半半空空의 소소 뜨니,  
西西湖湖 넋 주주人人을 반겨서 넘노난 닷.  
小小香香 爐爐 노 大대香香 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正正陽陽 寺寺 眞眞敬敬 赫赫대 고택 올라 안잔마리,  
廬廬山山 眞眞面면 目目이 여괴야 다 보나다.  
어와, 造造化化 翁翁이 현사토 현사할사.  
㉡ 날거든 뉘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淸淸 峯峰을 고갯난 닷, 白白 玉玉을 못갯난 닷,  
東東 溟溟을 박차난 닷, 北北 極極을 괴왔난 닷.  
눈흠시고 望望 高高 臺臺, 외로올사 穴穴 望望 峰峰이  
㉢하날의 추미러 무사 일을 사로리라  
千천 萬萬 劫劫 劫 劫 디나다록 구뵈 줄 모라난다.  
어와 너어이고, 너 가타니 또 잇난가.

(라)  
圓圓 通通 鼓鼓 가난 길로 獅獅子子 子子 峯峰을 차차가니,  
그 알패 너러바회 化化 龍龍 石石 되어세라.  
千천 年年 老老 龍龍 龍龍이 구배구배 서러 이서,  
晝晝 夜夜 야의 흘너 내어 滄滄 海海에 너어시니,  
㉣ 風風 雲雲 雲雲을 언제 어더 三三 日日 雨雨 雨雨 디련난다.  
陰陰 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사라.

9 평가개념 : 작품의 세부인 감상 [정답] ①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뵈리로다'에서 '삼각산'의 의미는 임금이 계신 곳을

무단 복제를 금함.

의미하며 특히 '하미면 보리로드'에서 간절한 그리움을 알 수 있으며, 지은이의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0. 평가개념 : 글의 내용과 한자성어 연결 [정답] ④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저귀니,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구절은 번성했던 왕조가 오늘날 터만 남을 정도로 사라지고 황폐한 모습만 남았다는 의미이니, 인생의 무상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11. 평가개념 : 문학적 표현의 원관념 이해 [정답] ①

(나)에서 표현된 것은 폭포의 모습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유의 방법을 썼다.

따라서 보조관념으로 쓰인 것은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웅의 꼬리',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는 모두 원관념이 폭포인 것이다.

12. 평가개념 : 문학적 표현의 원관념 이해 [정답] ④

'선학'의 원관념을 묻는 문제이다.

13. 평가개념 : 다양한 문학적 표현 감상 [정답] ⑤

㉔의 줄친 부분은 다음 구절의 '놓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사 혈망봉이'로 이어지면서 줄친 부분의 수식을 받는 것은 '망고대'와 '혈망봉'이 된다. 그러므로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의 묘사라 할 수 있다.

14. 평가개념 : 다양한 문학적 표현 감상 [정답] ⑤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디런난다.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아 내여사라'에서 '삼일우'나 '음애에 ~ 내여사라'는 백성을 구제하며 선정을 베풀고 싶다는 작자의 중신의 면모라 할 수 있다.

[16~22] 지문 해제

김종철 '간디의 물레'

'간디의 물레'는 영화 '간디'에서 반복적으로 '물레'를 돌리는 간디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여긴 글쓰기가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있던 인도의 상황과 연관지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확장시켜 쓴 글이다. 글쓰이는 영국이 식민 지배가 폭력에 기초해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저항인 간디의 사상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주의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글쓰이는 물레와 대비하는 거대 기계로 대변되는 산업 문명에 의한 착취와 억압 구조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물레'를 통해 인간의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간디의 사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주제 : 간디 사상에 나타난 비폭력주의와 물레의 현대적 의미

인 문

16. 평가개념 :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바)단락에서 물레는 인간의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간디는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간을 소외된 거대 기계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②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18. 평가개념 : 상징적 의미의 연결 파악 [정답] ⑤

'물레'는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라고 (바)에서 설명하고 있고, '거대 기계'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쉽다고 (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은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서로 바뀌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19. 평가개념 : 작품 속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 [정답] ①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문명으로 인간 생존의 자연적, 생물학적 기초 자체가 파괴되었다고 보고 있기에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① 부정적이 정당이다.

20. 평가개념 :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추구하는 이상 사회 [정답] ②

(바)에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간디가 구상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 중심이 아니라 소멸을 원했기 때문에 ②번이 정당이다.

21. 평가개념 : 대유적 표현의 사례 [정답] ⑤

①은 무력이나 폭력을 내세우는 주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칼'은 폭력의 수단을 뜻하는 대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⑤은 평화시위하는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경찰력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밀어부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머지는 전부 나눔, 직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 노력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인 문

[23~30] 지문 해제

완편본 '얼너춘향수절가'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긴 세월에 걸쳐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며 형성된 문학으로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징계와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 주제 : 유교적 정절, 신분을 초월한 사랑, 탐관오리 징계, 신분 상승 욕구

24. 평가개념 :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어사또가 결인의 모습으로 남원에 나타나자 본관사또는 결인들을 자신의 생일 잔치에 출입을 금하였기에 쫓아내려다 운봉의 말로 못마땅해하며 어사또를 맞이한다. 그러다보니 상차림 또한 나물만 올라온 상차림에 어사또는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보아 본관사또가 근사한 상차림을 내놓는다는 ⑤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5. 평가개념 : 반어적 표현의 이해 [정답] ④

속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반어적 표현이다. (가)의 ㉠은 가장 좋은 생일 잔치에 결인들은 출입을 금지시키니 결코 명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낸 반어적 표현법이다. (마)에서 어사또가 수청들기를 청하자 어사또가 누구인지 모르는 춘향이는 이 남원고을에 내려오는 관리마다 훌륭한 관리라고 말하는 부분은 속마음은 결코 명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속과 다르게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27. 평가개념 : 언어유희 중 동음이의어 표현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 결인 차림인 어사또는 나물만 올라온 허름한 상을 받고 말로 견어차며 갈비먹고 싶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갈비'에는 ①소나 돼지, 닭 따위의 뼈와 살을 식용으로 이르는 말. ②신체부위 중 운봉의 갈비뼈 등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해학성을 유발하는 언어유희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28. 평가개념 : 작품 속에 삽입된 한시 내용 이해 [정답] ①

한시의 내용은 본관의 사치스런 생일 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 형태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정답이다.

②물아일체(物我一體) :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③이심전심(以心傳心)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④금지옥엽(金枝玉葉) :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⑤동병상련(同病相憐)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29. 평가개념 : 상징적 의미의 연결 파악**      **정답 ㉠**

㉠은 따뜻한 봄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몽룡을 의미하는 중의적 단어이다. 봄바람으로 겨울을 이겨내듯, 이몽룡을 통해 본관사또의 억압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문산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